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shing of the *Chilseobang*

김 기 화(Kim, Ki-Hwa)*

◁ 목 차 ▷

- | | |
|-----------------------|-----------------|
| 1. 서 론 | 4.<七書房>의 출판 서적 |
| 2. 전주지방의 출판문화 | 4.1 연도 및 판본별 분포 |
| 2.1 전주지방의 출판배경 | 4.2 주제별 분포 |
| 2.2 전주지방의 출판활동 | 4.3 판권면의 기재사항 |
| 3. <七書房>의 출판활동 및 소장현황 | 5. 결론 |
| 3.1 <七書房>의 출판활동 | <참고문헌> |
| 3.2 <七書房>의 소장현황 | |

<초 록>

이 연구는 1908-1940년까지 전주지방의 출판업무를 담당한 민간서포 중에서 <七書房>에 대한 연구로, 출판활동기간과 판본별·주제별·서명별 분포와 판권면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것이다.

칠서방의 판권면에 편집 겸 발행자는 張煥舜으로 인쇄자는 金光秀로 등록되어 있다. 1916년부터 1918년까지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1916년에 많은 七書(四書三經)를 출판하였다.

판본별로는 목판본(97.5%)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일부 목활자본(2.5%)이 분포되어 있다.

주제별 특징은 대체로 經部(78%)가 우세하고 이 중에서 특히 四書類가 비중이 높고 易類와 書類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史部(14.4%)의 編年類, 子部(6.8%)의 類書類, 集部(0.8%)의 소설류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종수는 27종으로 서명별로 「周易傳義大全」이 제일 많고 「通鑑五十篇詳節要解」, 「孟子集註大全」, 「周易諺解」, 「論語諺解」, 「中庸諺解」 등으로 두 번 출판한 서적은 「家禮」,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通鑑五十篇詳節要解」,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이다.

판권면에 판권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1916년 판권면에는 七書房을 비롯한 昌南書館과 新舊書林 및 匯東書館·東美書市까지 4개 서점이 인쇄 겸 발행소로 등록되어 있지만 1917년과 1918년에는 칠서방만이 인쇄 겸 발행소 업무를 하고 昌南書館이 총 발매소로 등록되어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要語: 七書, 七書房, 張煥舜, 金光秀, 昌南書館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okkihwa@hanmail.net)

접수일: 2009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5일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Chilseobang*(七書房), one of private bookshops which published books in the Jeonju province from 1908 to 1940. In this research, the period of its publishing, and the editions, subjects, titles and imprints of its publications are examined.

On the colophons of books published by *Chilseobang*, Jang Hwansun(張煥舜) was recorded as an editor and a publisher, and Kim Kwangsu(金光秀) was a printer who worked from 1916 to 1918. Particularly, a lot of copies of Chilseo, that is, Seven Confucious Classics were published in 1916.

In terms of editions, the majority of the publications were wood-block prints(97.5%) and only few were books printed in wooden movable types(2.5%).

In terms of subjects, the class of Confucious Classics was predominant in numbers(78%), and among them, there were a lot of Four Confucious Classics, and some Books of Changes and Books of Documents. The rest were chronologies in the class of History(14.4%), encyclopedic works in the class of Miscellaneous Topics(6.8%), and novels in the class of Collections(0.8%).

Among a total of 27 titles,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JuyeokJeonuidaejeon*(周易傳義大全), and *Tongnamosippyeonsangjeolyohae*(通鑑五十篇詳節要解), *Maengjajipjudaejeon*(孟子集註大全), *Juyeokeonhae*(周易諺解), *Noneoeonhae*(論語諺解), *Jungyongeonhae*(中庸諺解) were published several times. *Karye*(家禮), *Somigasuk-jeomkyobueumtongnamjeolyo*(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Tongnamosippeon-sangjeolyohae*(通鑑五十篇詳節要解), and *Jeongseondongnaeseonsangjvassijeoneui-guhae*(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 were published twice.

There were no copyrights on their colophons. On the imprint of 1916, four other bookshops, including Changnamseokwan(昌南書館), Singuseorim(新舊書林), Hoidongseokwan(匯東書館), and Dongmiseosi(東美書市), as well as Chilseobang(七書房) were registered as a printer and publisher. In 1917 and 1918, however, only Chilseobang(七書房) was registered as a printer and publisher, Changnamseokwan(昌南書館) was registered as the sole agency in charge of selling its publication.

Key words: Chilseo, *Chilseobang*, Jang Hwansun, Kim Kwangsu, ChangNam bookshops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서적 판매업을 매우 금기시 되어 오다 임진왜란 이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이 출현¹⁾하였는데, 대구지역의 달성방각본, 서울과 안성의 경판 및 안성판방각본, 전주와 태인의 완판방각본과 태인 방각본들이 중심이 되었다.

개화기에 이르러 근대적 인쇄기술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생산되었고 이것을 유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포가 생기게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서포는 개화기 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이미 조선시대 書肆에서 시작되었다.²⁾

1880년 개화기 최초의 민간서포인 고제홍서포를 비롯한 많은 서포들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다가 1906년 대구의 김기홍서포를 시작으로 지방에서도 서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³⁾ 활발해진 상공업의 영향과 다양해진 출판물 및 서적 욕구로 인해 점차 정착하여 활발한 출판활동을 하였다.

당시 서포의 역할은 서적의 판매와 서적의 발행 및 서적의 유료 대여를 비롯한 서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등, 오늘날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출현한 민간서포들은 文明書館과 西溪書鋪, 完興社書鋪, 多佳書鋪와 昌南書館 및 七書房, 梁冊房, 一心堂書鋪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 서포와 관련된 연구는 국어국문학⁴⁾분야에서 다소 이루어지고 있고 포괄

1)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65.

2) 김봉희. 앞의 책, 66.

3) 김봉희, 앞의 책, 68-69.

4) 이태영. “지역 전통 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방안: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제30輯(2004. 1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73-304. ;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경상감영 400주년 기념,” 제15회 한국향토사연구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 『향토사연구』 제13-14집(2002), 131-138.

적이지만 서지학분야 연구⁵⁾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서포와 관련된 출판연구는⁶⁾ 많지 않은 것에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간 서포 중에서 칠서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칠서방의 출판활동 시기와 판본별·주제별·서명별·판권면 기재사항을 조사하여 특징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칠서방의 출판활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전주시방의 출판문화

2.1 전주시방의 출판배경

전주⁷⁾는 신라 통일이후 호남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관으로 豐浦之鄉이라 부르게 되었다.⁸⁾

1392년太祖 원년에 전주부에 監營 즉 觀察使營이 설치되었고 중앙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지를 제작하였다. 감영에는 造紙所를 마련하여 모든 일에 사용할 紙地를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⁹⁾

1403년(太宗 3)太宗이 完山府를 全州府로 개칭하였고, 1895년에는 을미개혁

5) 강혜영. “20세기 전반기 전주시방 서적의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第41輯 (2008. 12), 83-119. ; 남권희. 한국의 고문헌과 출판문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주최. 제7회 고전문화강좌, (2008.4) 1-28.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 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정형: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韓國出版學研究 통권 第49號(2005. 12), 215-252. ; 최호석. “지송옥과 친구서립,” 古小說研究, 第19집(2005), 255-282. ; “出版文化의 殿堂 博文書館의 業績,” 『朝光』 4권 12호, (1938. 12), 312-315.

7) 전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전주가 마한 중에서 불사분사국이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전주: 신아출판사, 2001), 49.

8) 羅鍾宇 著. 『全北의 歷史와 人物』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3), 295.

9)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앞의글. 54.

으로 전주부가 개폐되어 관할구역이 동서남북 4개면과 외곽의 27개면을 합한 31개면으로 되었다.¹⁰⁾

1910년 전주에 전라북도 도청이 설치되었고 1914년에는 전주부의 4개면을 전주면으로 하고 인접한 17개면을 전주군으로 하였다.

1930년에는 상관면 일부가 전주면에 편입되어 전주읍으로 승격되어 화산정과 소화정이 신설되고 1년 4개월후 전주 읍으로 되었다가 다시 10월에 전주부로 승격하였다.¹¹⁾

전주지방에서 출판문화가 일찍 발생하게 된 첫째 이유는, 다른 지방에 비해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가 자라기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종이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북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우수성은 대체로 고려시대부터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한지를 만들었던 고장으로 유명하다.¹²⁾

전주 한지는 천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종이로 東國輿地勝覽(1481년)에서는 전주를 ‘上品紙의 산지’라고 하였고 18세기 輿地圖書와 1864년 大東地志에서는 조선시대 전주의 한지가 최상품¹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화기 시대에는 전주에서 전국 한지 수요량의 70%를 생산해서 공급하였으며 1910년에는 다양한 종류의 한지가 전주에서 생산되었는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종이는 전주에서 만든 蓆壯紙로 으뜸¹⁴⁾으로 꼽았다.

둘째, 곡창지대의 중심지로 전주의 4대 문밖 장터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유통이 활발한 상업도시로 경제·문화적 풍요로움이 서울에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방에서는 최초로 완판본을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방각본이 전주와 태인에서 성행하였다.

10) 완산지. 방리조, 강혜영. 앞의 글, 86에서 재인용.

11) 전주부사, 321, 327. 강혜영. 앞의 글 87에서 재인용.

12) 羅鍾宇 著. 앞의 책. 258.

13) 이태영. 앞의 글. 297.

14) 이태영. 앞의 글, 297.

셋째, 출판 및 인쇄소의 출현으로 전주에는 4대문인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나누는데, 고문헌에 수록된 간기인 ‘完山’에는 ‘全州市 完山洞’으로 이곳에는 출판소가 없기 때문에 완산은 ‘全州’를 나타내는 것¹⁵⁾으로 추측한다.

서문으로 고소설의 간기에 ‘完西’가 있어 전주의 서쪽인 다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西溪書鋪에서 출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문은 ‘完南’으로 龜石里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 중앙동 4가를 말하는 데, 完南이 반드시 龜石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⁶⁾ 1916년의 관권면에는 多街書鋪로 되어 있다.

북문은 ‘完北’¹⁷⁾으로 방위가 인쇄된 책이 발견되지 않아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북문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4대문 외에도 출판이 성행하였다는 것을 간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龜洞’으로 全北 完州郡 九耳面은 ‘龜耳洞面’의 약칭으로 불렸으며 龜石里와 九石里는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 ‘대화정(전동1가)’과 ‘청수정(교동)’으로 일부 편입되었는데 完南과 完西의 방위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 근처의 ‘봉성’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종이 및 완판방각본과 출판소들의 출현으로 전주에서 출판문화가 다른 지방보다 일찍 발생하게 된 배경들이다.

2.2 전주시방의 출판활동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는 사대부 취향의 도서인 완영판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전라감영에서 발행한 책으로는 60여 종류의 책이 간행되었는데, 현재 전주향교에 보관되어 있다.¹⁸⁾

전주의 완판 방각본은 사가판으로 서계의 『史要聚選』을 비롯하여 태인판의

15) 이태영. 앞의 글, 287.

16) 이태영. 앞의 글, 286.

17) 도웅전에 ‘光武七年(1903)癸卯夏完山北門內重刊’으로 기록되어 있다.

18)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앞의글, 54-55.

孫基祖¹⁹⁾와 田以采 이후 朴致維 방각본이 19세기 초까지 重刊 되었으며 지역적으로 西溪, 完山, 完西, 完南, 完龜에서 간행한 판본²⁰⁾과 전주부의 하경룡이 개인적으로 간행한 판본²¹⁾까지 포함한다.

1900년부터 전주지방에서 출판을 담당한 민간서포들은 文明書館, 西溪書鋪, 完興社書鋪, 多佳書鋪, 昌南書館, 七書房, 梁冊房, 一心堂書鋪 등이 활동을 하였다. 이들 서포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明書館²²⁾은 발행자가 梁完得으로 1911년 당시 ‘全州郡 多佳町 壹貳四番地’로 다가서포의 옆집으로 주로 통감류를 많이 출판하였다.

둘째, 西溪書鋪의 발간자는 卓種佶로 1911년 당시 ‘全州郡 府西面 四契 十三統 六戶’로 부서면 4계는 행정 구역명을 변경하여 ‘본정 2정목(다가동 1가)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현재 위치는 다가서포와 창남서관 사이로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가 70번지²³⁾로 화룡도 · 도웅전 · 유충열전 · 심청전 · 초한전 · 장풍운전 · 열여춘향슈절가 · 구운몽하 등 고소설을 출판하였다.

셋째, 完興社書鋪는 朴敬輔가 발행자로 1912년 주소로 ‘全州郡 府南面 九石里 一統一戶’이며 유충열전을 비롯한 고소설을 발간하였다.

넷째, 多佳書鋪는 1916년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白二十三番地’로 발간자인 梁珍泰의 호적등본 주소와 동일하다. 그 후 호적등본의 주소는 ‘全州府 本町 貳丁目 四十參番地’로 변동되었는데 지금 ‘전주지 완산구 다가동 2가 123번지 자리이다.²⁴⁾ 주로 화룡도 · 도웅전 · 심청전 · 장경전 · 장풍운전 · 초한전 · 퇴별가 · 유충열전 · 열여춘향슈절가 · 홍길동전 · 구운몽 등을 출판하였다.

다섯째, 昌南書館의 발행자는 張煥舜으로 칠서방의 판매소이며 1916년에 간행한 한문본 구운몽에 ‘崇禎後三度癸亥’를 출판하였다.

19) 明心寶鑑抄의 권말에 “崇禎後甲辰春泰仁孫基祖開刊” 간기수록.

20) 남권희. 앞의 글, 23.

21) 周易諺解 권말에 “歲庚午仲春開刊全州府河慶龍藏板” 간기수록.

22) 문명서관은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기타 자료에 광고를 한 연도는 1908년으로 되어 있다. 김봉희. 앞의 책, 86.

23) 이태영. 앞의 글, 289-290.

24) 이태영. 앞의 글, 290-291.

여섯째, 梁冊房의 발행자는 梁承坤으로 1932년 주소는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890번지’이다.²⁵⁾ 1937년 ‘諺解圖像 童蒙初學’의 판권면에 수록된 주소는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 911번지’로 1932년 890번지의 길 건너 앞집의 번지로 주로 도옹전과 화룡도 및 용문전, 인삼국지 등 고소설을 간행하였다.

일곱째, 一心堂書鋪의 발행자는 李鳳淳으로 현재 광한루 천변 근처이며 고소설인 이대봉진과 1911년 탁종길이 발행한 ‘增補參贊秘傳天機大要’ 상하권 2책을 전주에서 가져와 보완하여 1916년 重刊하고 1931년 三刊하여 판권면이 동일하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서포들 외에도 문헌의 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養洞, 鍾洞, 杏谷, 西門外 등이 출판을 담당하였다.²⁷⁾

전주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은 대부분이 교육용 도서와 생활참고 도서로 완산에서 간행된 책은 童蒙先習을 비롯한 240여 종류에 이르며 이중에는 문집도 포함되어 있다.²⁸⁾

그리고 1870년 全州의 河慶龍이 발간한 四書三經인 七書와 七書諺解도 있으며,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오락적 독서를 즐기는 아녀자들과 서민층이 읽는 완판방각본 소설도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3. <七書房>의 출판활동 및 소장현황

3.1 <七書房>의 출판활동

1908년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및 기타자료에 張在彦이 경영주로 全州 南溪의 주소가 기재된 출판활동에 관한 광고를²⁹⁾ 하였고, 1916년 판권면에 보면

25) 이태영. 앞의 글. 292.

26)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앞의글. 59.

27) 養洞: “歲在暮春完山養洞新刊,” 鍾洞: “戊申之年(1908)完南鍾洞新刊,” 杏谷: “崇禎紀元後四 壬戌(1862)杏谷開刊”은 판권면에 大正五年(1916)十月八日發行 多佳書鋪.

28) 이태영.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앞의글. 56.

경영주는 張煥舜으로 그의 신분이나 가계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장재언이 아마 그의 父親이거나 같은 가계의 인물인 것으로 추측된다³⁰⁾고 한다.

<七書房>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七書는 四書三經을 합한 것으로 조선 시대 기본적인 교육서에서 나온 것이다. 즉 四書에는 論語·大學·中庸·孟子이며 三經은 詩經·書經·易經으로 구분하며 칠서방에서 사용한 七書(四書三經)의 책판은 1870년 全州의 河慶龍이 출판한 것이다.

하경룡과 편집 겸 발행자인 張煥舜과 관련된 기록은 없지만 하경룡장판을 이용하여 칠서방에서 사서삼경을 출판하였다는 것을 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칠서방의 주소는 ‘全州郡 本町 一丁目 百四十一番地로 1914년 契와 里가 일본식 명칭인 町으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어서 본정 1정목은 전동 3가로 현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이며 현재 전주천변 매곡교 옆 어묵 판매 상점³¹⁾이 있는 자리이다.

칠서방은 다른 서포들과 다르게 주로 經書類인 四書三經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하였다.

출판활동 시기는 판권면에 수록된 연도를 통해서 보면 1916년부터 1918년의 것이 대다수로 짧은 기간에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고 출판 서적들은 昌南書館에서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전국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여 칠서방이 출판문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3.2 <七書房>의 소장현황

칠서방 출판 서적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시스템과 전국대학 도서관 소장 고서목록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여러 기관과 전국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들 중에서 칠서방의 간행 기록을 보면 건국대 6건, 경기대 6건, 경남대 5건, 경북대 8건, 경상대 5건, 계명대

29) 김봉희. 앞의 책, 87.

30) 유탁일. 『韓國文獻學研究』(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233.

31) 이태영. 앞의 글, 291-292.

3건, 고려대 5건, 국립중앙도서관 15건, 단국대 2건, 동국대 22건, 동아대 4건, 명지대 1건, 부산대 1건, 신라대 3건, 숙명여대 2건, 안동대 2건, 연세대 2건, 영남대 9건, 원광대 1건, 전남대 6건, 전북대 1건, 전주대 1건, 충남대 1건, 한양대 5건, 한중연 장서각 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소장처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七書房>서적의 소장현황

번호	소장처	서명	건수
1	건국대 도서관	論語諺解	6
		論語諺解	
		論語集註大全	
		大學諺解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通鑑五十篇詳節要解	
2	경기대 도서관	書傳諺解	6
		書傳大全	
		史要聚選	
		論語諺解	
		通鑑五十篇詳節要解	
		論語集註大全	
3	경남대 도서관	周易諺解	5
		周易諺解	
		周易諺解	
		周易諺解	
		周易諺解	
4	경북대 도서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8
		書經	
		通鑑五十篇詳節要解	
		孟子諺解	
		孟子諺解	
		孟子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5	경상대 도서관	寒暄筭錄	5
		通鑑五十篇詳節要解	
		論語集註大全	
		論語諺解	
		論語諺解	
6	계명대 도서관	論語集註大全	3
		詩經諺解	
		詩傳大全	
7	고려대 도서관	小學諺解	5
		小學諸家集註	
		通鑑五十篇詳節要解	
		通鑑五十篇詳節要解	
		家禮	
8	국립중앙도서관	家禮	15
		九雲夢	
		論語諺解	
		論語諺解	
		論語集註大全	
		大學章句大全	
		事文抄	
		書傳大全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周易諺解	
		中庸諺解	
		中庸諺解	
		中庸諺解	
		中庸章句大全	
		通鑑五十篇詳節要解	
9	단국대 퇴계기념관(서울)	通鑑五十篇詳節要解	2
	단국대 율곡기념관(천안)	通鑑五十篇詳節要解	

10	동국대 도서관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	22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大全				
		11		동아대 도서관	大學諺解	4
					論語諺解	
大學諺解						
孟子諺解						
12	명지대 도서관	兒戲原覽	1			
13	부산대 도서관	通鑑五十篇詳節要解	1			
14	신라대 도서관	史要聚選	3			
		論語諺解				
		書傳諺解				
15	숙명여대 도서관	論語諺解	2			
		論語集註大全				
16	안동대 도서관	中庸諺解	2			
		孟子集註大全				
17	연세대 도서관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	2			
		家禮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18	영남대 도서관	大學章句大全	9
		孟子諺解	
		孟子集註大全	
		書傳諺解	
		書傳諺解	
		書傳諺解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小學諺解	
		詩經諺解	
19	원광대 도서관	中庸諺解	1
20	전남대 도서관	中庸諺解	6
		中庸諺解	
		易傳繫辭	
		大學諺解	
		大學諺解	
		通鑑五十篇詳節要解	
21	전북대 도서관	兒戲原覽	1
22	전주대 도서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1
23	충남대 도서관	書傳諺解	1
24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안산)	孟子集註大全	5
		孟子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25	한중연 장서각	詩經諺解	2
		詩傳大全	
계	25곳		118

<표 1>에서 보면 칠서방에서 출판한 서적 소장처는 25곳으로 총 118건으로 파악되었다.

4.<七書房>의 출판 서적

칠서방에서 출판한 서적들은 주로 七書인 四書三經을 간행하고 그 밖의 事文

抄」와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史要聚選」, 「寒暄筭錄」 등의 유생들의 필독서와 「兒戲原覽」 등 아동용 도서들을 간행하였다는 것을 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출판서적을 연도와 판본 및 주제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4.1 연도 및 판본별 분포

칠서방의 판권면에 수록된 연도를 조사하여 각 연도별로 특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체 출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칠서방에서 1916년(대정 5)에 출판한 서적을 보면 권말에 「歲庚午中 春開刊 全州府 河慶龍藏」이 수록되어 있고 「大正五年月日印刷 및 發行」으로 전주부의 하경룡이 개인적으로 판본을 간행하였다.

하경룡이라는 인명을 상호로 하여 1870년(高宗 10) 한 해 간행한 문헌을 보면 1867년(高宗 7) 豐沛에서 「孟子集註大全」이 먼저 간행한 것을 제외하고 四書三經 전부를 간행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사서류를 인출한 것을 현존하는 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하경룡 장관에서는 사서삼경 언해본 외에도 다양한 경전의 주석서를 간행하였는데 「周易傳義大全」, 「書傳大全」, 「詩傳大全」, 「孟子集註大全」, 「中庸章句大全」, 「周易諺解」, 「論語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등을 인출하였다.³²⁾

첫째, 칠서방에서 출판한 1916년(대정5)의 서적은 「論語諺解」, 「論語集註大全」, 「論語集註大全」, 「大學諺解」, 「大學章句大全」, 「中庸諺解」, 「中庸章句大全」, 「詩經諺解」, 「詩傳大全」, 「書傳大全」, 「書傳諺解」, 「孟子集註大全」, 「孟子諺解」, 「周易諺解」, 「周易傳義大全」, 「書經」, 「小學諺解」, 「小學諸家集註」, 「易傳繫辭」, 「寒暄筭錄」, 「兒戲原覽」, 「九雲夢」 등으로 전체 24종 104건이다.

둘째, 1917년(대정 6)의 서적은 「家禮」, 「事文抄」,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通鑑五十篇詳節要解」가 4종으로 전체 7건이 조사되었다.

32) 남권희, “한국의 고문헌과 출판문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주최,” 제7회 고전문화강좌. 2008, 24.

셋째, 1918년(대정7) 서적은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史要聚選」,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가 3종으로 전체 7건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간행분포에서 1917년에는 「家禮」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通鑑五十篇詳節要解」는 1916년에도 출판된 것으로 다시 출판하였고 1918년에는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이 중복 출판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종수는 27종이다.

넷째 판본별로는 목판본이 1916년에 101건과 목활자본이 3건으로 파악되었으며, 1917년에 목판본 7건과 1918년에도 목판본 7건으로 목판본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七書房>출판 서적의 연도와 판본별 분포

번호	서명	출판년(출판회수)	판본별(판본회수)
1	家禮	1916년	목판본
2	九雲夢	1916년	목판본
3	論語諺解	1916년(10)	목판본(10)
4	論語集註大	1916년(6)	목판본(6)
5	大學諺解	1916년(5)	목판본(5)
6	大學章句大全	1916년(2)	목판본(2)
7	孟子諺解	1916년(4)	목판본(4)
8	孟子集註大全	1916년(10)	목판본(10)
9	書經	1916년	목판본
10	書傳大全	1916년(2)	목판본(2)
11	書傳諺解	1916년(6)	목판본(6)
12	小學諺解	1916년(2)	목판본(2)
13	小學諸家集註	1916년	목판본
14	詩經諺解	1916년(3)	목판본(3)
15	詩傳大全	1916년(2)	목판본(2)
16	兒戲原覽	1916년(3)	목판본(3)
17	易傳繫辭	1916년	목판본
18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1916년(2)	목판본(2)
19	周易諺解	1916년(10)	목판본(9) 목활자본(1)
20	周易傳義大全	1916년(14)	목판본(14)
21	中庸諺解	1916년(7)	목판본(7)

번호	서명	출판년(출판회수)	판본별(판본회수)
22	中庸章句大全	1916년	목판본
23	通鑑五十篇詳節要解	1916년(9)	목판본(8) 목활자본(1)
24	寒暄筭錄	1916년	목활자본
소계	24종	104건(88.2%)	목판본 101건 목활자본 3건
1917년			
1	家禮(중복)	1917년(2)	목판본(2)
2	事文抄	1917년	목판본
3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1917년(2)	목판본(2)
4	通鑑五十篇詳節要解(중복)	1917년(2)	목판본(2)
소계	4종	7건 (5.9%)	목판본 7건
1918년			
1	史要聚選	1918년(2)	목판본(2)
2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중복)	1918년(2)	목판본(2)
3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중복)	1918년(3)	목판본(3)
소계	3종	7건 (5.9%)	목판본 7건
합계	27종(중복 제외)	118건(100%)	목판본 115건(97.5%) 목활자본 3건 (2.5%)

<표 2>에서 보면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출판 서적은 27종으로 1917년에 「事文抄」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이며 1918년에는 「史要聚選」을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4.2 주제별 분포

칠서방의 서적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經史子集으로 분류하면 전체 27종으로 經部 92건 중에서 史書類 45건, 易類 25건, 書類 9건, 詩類 5건, 禮類 3건 春秋類 5건, 四書類 45건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史部 17건으로 編年類 15건, 史鈔類 2건이다. 子部는 8건으로 儒家類 3건, 類書類 5건이며, 集部는 小說類가 1건으로 전체 118건을 출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七書房>출판서적의 주제별 분포

分類	經部						史部		子部		集部
類別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四書類	編年類	史鈔類	類書類	儒家類	小說類
1	易傳繫辭(1)	書經(1)	詩經諺解(3)	家禮(3)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5)	論語集註諺解(10)	通鑑五十篇詳節要解(11)	史要聚選(2)	兒戲原覽(3)	小學諺解(2)	九雲夢(1)
2	周易諺解(10)	書傳大全(2)	詩傳大全(2)	·	·	論語集註大全(6)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4)	·	事文抄(1)	小學諸家集註(1)	·
3	周易傳義大全(14)	書傳諺解(6)	·	·	·	大學言解(5)	·	·	寒暄筭錄(1)	·	·
4	·	·	·	·	·	大學章句大全(2)	·	·	·	·	·
5	·	·	·	·	·	孟子諺解(4)	·	·	·	·	·
6	·	·	·	·	·	孟子集註大全(10)	·	·	·	·	·
7	·	·	·	·	·	中庸諺解(7)	·	·	·	·	·
8	·	·	·	·	·	中庸章句大全(1)	·	·	·	·	·
소계	25	9	5	3	5	45	15	2	5	3	1
합계	92 (78.0%)						17 (14.4%)		8 (6.8%)		1 (0.8%)

※ ()안의 숫자는 총 출판회수를 나타냄.

<표 3>에서 보면 經部가 78%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史部로 14.4%, 子部는 6.8%, 集部는 0.8%로 분포되어 있다.

4.3 판권면의 기재사항

칠서방의 판권면에 대한 형식 및 수록내용을 조사하여 칠서방 출판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 1909년 2월 23일 출판법을 제정하였다.

출판법에는 도서 출판에 앞서 원고를 제출하여 허가 받도록 규정하였고, 출판한 다음에도 바로 저작물 2부를 납본도록 하여 사후 검열까지 받도록 규정하였다. 게다가 이 법을 소급적용하여,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서적일지라도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³³⁾

출판법에 수록된 판권면에 관한 규정은 발행서마다 판권면을 두도록 하고 여기에 저작자, 발행자, 발행소, 인쇄자, 인쇄소, 발매소 등의 이름과 주소 및 인쇄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다.

판권면의 사용 규정은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모든 출판물에 수록하도록 하였는데, 판권면 사용 이전에는 간기로 확인하였다.

칠서방에서 출판된 서적의 판권면의 특징으로 ‘歲庚午(1870)仲春開刊’의 舊刊記와 그 아래에 ‘全州府河慶龍藏板’이라는 篆字로 된 도장이 찍혀있어 발행서적의 저본을 나타내고 있다.

발행 서적의 판권면에는 인쇄 및 발행일자, 허가사항, 편집 겸 발행자주소와 이름, 인쇄자의 주소와 이름, 인쇄 겸 발행소 주소, 발매소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권면을 조사해 보면 1916년·1917년·1918년의 내용에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1916년 발행한 판권면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16년 판권면에 대한 내용은 「中庸諺解」이며 목판본으로 전남대학교 소장본이다.

① 「中庸諺解」

인쇄일자: 大正五年四月十一日印刷

발행일자: 大正五年五月二十三日發行

33)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第13輯(2006), 293.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허가

편집겸발행자 주소: 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편집겸발행자 이름: 編輯兼發行者 張煥舜

인쇄자 주소: 全州郡大正町五丁目七十番地

인쇄자 이름: 印刷者 金光秀

인쇄겸발행소 주소: 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인쇄겸발행소 명칭: 印刷兼發行所 七書房

인쇄겸발행소 주소: 全州郡多佳町四十五番地

인쇄겸발행소 명칭: 昌南書館

인쇄겸발행소 주소: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十五番地

인쇄겸발행소 명칭: 新舊書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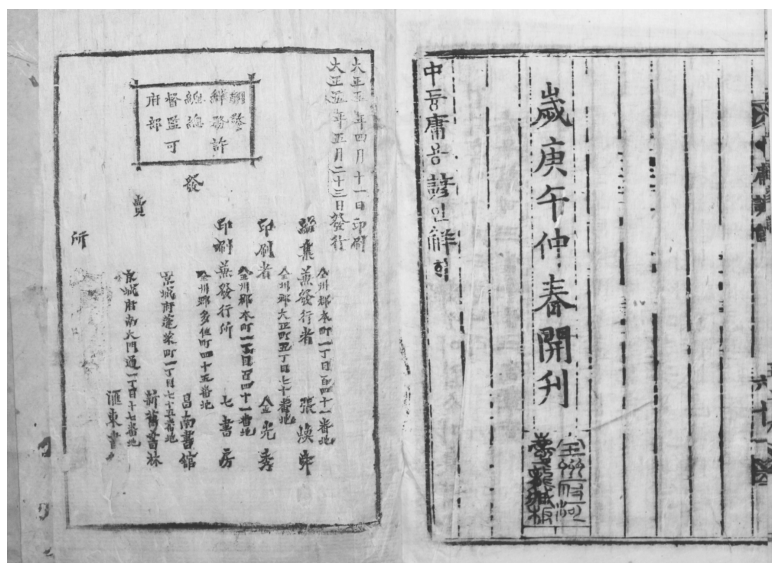
인쇄겸발행소 주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인쇄겸발행소 명칭: 匯東書館

권말에 歲庚午仲春開刊과 全州府河慶龍藏板이 수록되어 있고 판권면에는 인쇄와 발행일자·편집 겸 발행자 주소와 이름·인쇄 겸 발행소의 주소와 명칭이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편집 겸 발행자는 張煥舜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장환순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으며, 인쇄자는 金光秀로 되어 있다. 인쇄 겸 발행소는 칠서방과 창남서관이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인쇄 겸 발행소는 池松旭이 주인으로 1908년에 출판활동을 한 서울의 친구서림과 1880년대 말 개화기 최초의 서포인 高濟弘서사로 출발하여 아들 고유상이 가업을 발전시켜 1906년까지 고제홍서포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그 후에 고유상서포로 개칭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서점인 회동서관이 담당하였다.



<그림 1> 1916年「中庸諺解」판권면(전남대)

또 1916년 판권면은 「書傳諺解」 권5이며, 목판본으로 신라대학교 소장본이다.

② 「書傳諺解」

인쇄일자: 大正五年四月十一日印刷

발행일자: 大正五年五月二十三日發行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허가

편집검발행자 주소: 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편집검발행자 이름: 編輯兼發行者 張煥舜

인쇄자 주소: 全州郡大正町五丁目七十番地

인쇄자 이름: 印刷者 金光秀

인쇄검발행소 주소: 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인쇄검발행소 명칭: 印刷兼發行所 七書房

인쇄검발행소 주소: 全州郡多佳町四十五番地

인쇄검발행소 명칭: 昌南書館

인쇄검발행소 주소: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十五番地

인쇄검발행소 명칭: 新舊書林

인쇄검발행소 주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인쇄검발행소 명칭: 匯東書館

인쇄검발행소 주소: 京城府蓬萊町一丁目百三十五番地

인쇄검발행소 명칭: 東美書市

1916년 판권면에 발행자의 저작역할어가 ‘편집검발행자’로 되어 있으며 인쇄 검 발행소는 앞에서 살펴본 칠서방을 비롯한 3개의 서포외에도 東美書市가 추가 되어 4개의 서포가 등록되어 있다.

전주에 있는 칠서방을 제외하고 4개 서포는 경성에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림 2> 1916年「書傳諺解」권5 판권면(신라대)

1917년 판권면에 대한 내용으로 「通鑑五十篇詳節要解」권下이며 목판본으로 부산대학교 소장본이다.

① 「通鑑五十篇詳節要解」

인쇄일자: 大正六年八月一日印刷

발행일자: 大正六年八月十日發行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허가

편집검발행자 주소: 全北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편집검발행자 이름: 編輯兼發行者 張煥舜

인쇄자 주소: 全北全州郡大正町五丁目七十番地

인쇄자 이름: 印刷者 金光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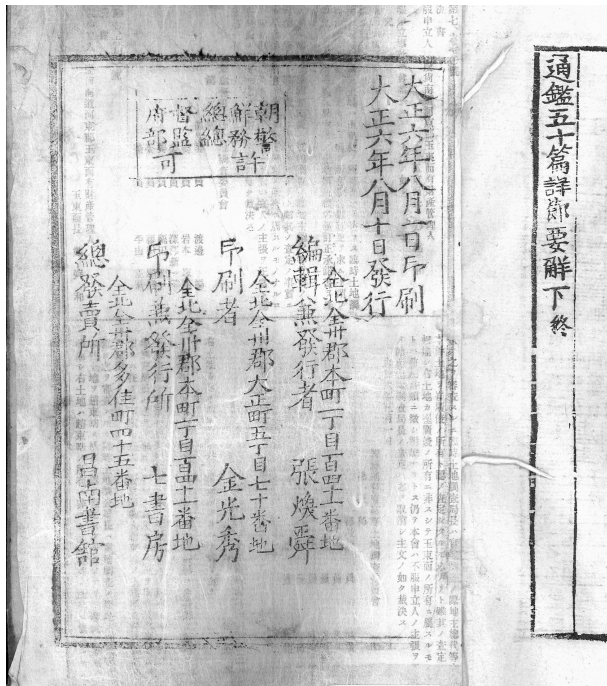
인쇄검발행소 주소: 全北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인쇄검발행소 이름: 印刷兼發行所 七書房

총발매소 주소: 全北全州郡多佳町四十五番地

총발매소 명칭: 總發賣所 昌南書館

1917년 판권면의 특징은 편집 검 발행자의 주소에 全北이 추가되어 있으며 1916년 판권면에 있는 서울의 신구서림과 회동서관 및 동미서시는 없고, 전주에 있는 창남서관이 총 발매소로 등록하여 판매업무를 하였다.



<그림 3> 1917年「通鑑五十篇詳節要解」권하 판권면(부산대)

1918년 판권면의 내용을 보면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으로 목판본이며 경북대학교 소장본이다.

①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인쇄일자: 大正七年六月二十四日印刷

발행일자: 大正七年六月二十七日發行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허가

편집검발행자 주소: 全北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편집검발행자 이름: 編輯兼發行者 張煥舜

인쇄자 주소: 全北全州郡大正町五丁目七十番地

인쇄자 이름: 印刷者 金光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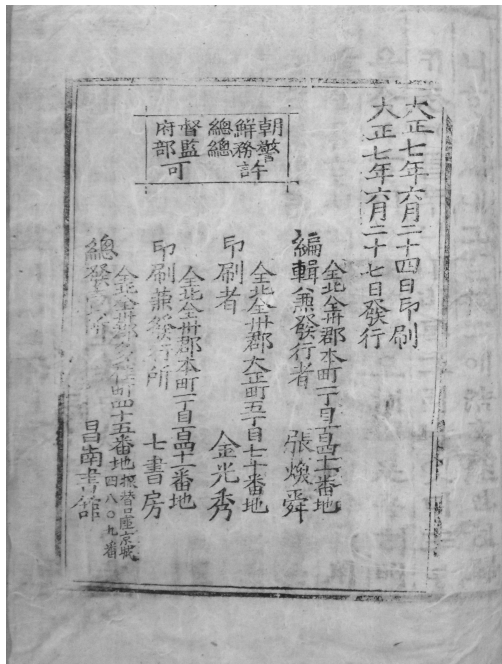
인쇄겸발행소 주소: 全北全州郡本町一丁目百四十一番地

인쇄겸발행소 이름: 印刷兼發行所 七書房

총발매소 주소: 全北全州郡多佳町四十五番地振替口座京城四八〇九番

총발매소 명칭: 總發賣所 昌南書館

1918년 판권면에는 총 발매소 주소에 振替口座京城四八〇九番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4> 1918年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판권면(경북대)

지금까지 살펴본 칠서방의 판권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七書房>판권면의 기재 사항

판권면 수록 내용	1916년	1917년	1918년
인쇄일자	○	○	○
발행일자	○	○	○
허가내용	○	○	○
편집 겸 발행자 주소	○	주소에 全北추가	○
編輯兼發行者 張煥舜	○	○	○
印刷者 주소	○	○	○
印刷者 金光秀	○	○	○
印刷兼發行所 주소	○	○	○
印刷兼發行所 七書房	○	○	○
인쇄 겸 발행소 주소	○	○	總發賣所 주소아래에 振替口座京城四八〇九番 (추가)
昌南書館	○	總發賣所 昌南書館	○
인쇄 겸 발행소 주소	○	없음	없음
新舊書林	○	없음	없음
인쇄 겸 발행소 주소	○	없음	없음
匯東書館	○	없음	없음
인쇄 겸 발행소 주소	○	없음	없음
東美書市	○	없음	없음

※ ○은 1916년 판권면과 동일표시

<표 4>에서 보면 1917년과 1918년 판권면에는 총 발매소인 昌南書館만 등록되어 판매활동을 하였다.

5. 결론

이상으로 칠서방에서 출판한 서적현황 및 연도별 · 판본별 · 주제별 · 판권면의 형식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 1) 칠서방의 출판시기는 판권면에 수록된 연대로 보아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서적을 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발행 서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의 관련면에서 칠서방이 수록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장처는 25곳이며 총 118건으로 조사되었다.
- 3) 연도별로는 1916년에 104건, 1917년 7건, 1918년 7건으로 주로 1916년에 집중적으로 출판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판본별로 1916년 목판본이 101건, 목활자본 3건, 1917년 목판본 7건과 1918년에도 목판본 7건으로 출판하였다.
- 4) 주제별 특징은 대체로 經部가 92건으로 전체 78%를 차지하여 제일 많이 발행되었고 다음으로 史部가 17건으로 14.4%이며 子部가 8건으로 6.8%, 集部가 1건으로 0.8%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부에서도 사서류(38.1%) 45건, 역류(21.1%) 25건, 서류 9건(7.62%), 시류 5건, 춘추류 5건, 예류 3건이며, 사부에서는 편년류(14.41%) 15건, 초사류가 2건이다. 자부에서는 유서류(4.23%) 5건, 유가류 3건이며 집부는 소설류가 1건이다.
- 5) 전체 종수는 27종으로 서명별로 「周易傳義大全」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通鑑五十篇詳節要解」, 「孟子集註大全」, 「周易諺解」, 「論語諺解」, 「中庸諺解」, 「書傳諺解」, 「論語集註大全」,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 「大學諺解」, 「孟子諺解」,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詩經諺解」 순으로 출판하였다.
- 6) 두 번 출판한 서적은 「家禮」,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通鑑五十篇詳節要解」,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로 파악되었다.
- 7) 1916년과 1917년·1918년의 관련면 형식을 보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관련표시가 없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며 1916년 인쇄 겸 발행소는 칠서방을 포함한 창남서관과 신구서림 및 회동서관을 비롯한 동미서시까지 4개 서점이 담당하였고, 1917년과 1918년에는 칠서방만이 인쇄 겸 발행소 역할을 하고 창남서관이 총 발매소로 등록되어 전국을 상대로 판매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소장한 칠서방 간행 서적과 접근이 불가능한 기관에 소장한 자료는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강혜영. “20세기 전반의 전주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83-119.
-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 羅鍾宇 著. 全北의 歷史와 人物.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3.
- 남권희. 한국의 고문헌과 출판문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주최. 제7회 고전문화 강좌. 2008. 1-28.
-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第13輯(2006). 271-302.
- 朴尙均 編. “開化期の 書肆・出版社.” 圖書館 第33권 제4호. 국립중앙도서관. 1978. 23-29.
- 방효순. “일제시대 저작권 제도의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21輯(2001).
- 안춘근. 한국출판문화론. 서울: 범우사, 1981.
- . 『韓國出版文化史大要』. 서울: 靑林出版, 1987.
- 유탉일. 한국문헌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경험: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韓國出版學研究』 통권 제49호. 한국출판학회. 2005.
- 이태영. “개화기 시대의 출판문화를 통해서 본 전주시민의 정신.” 『전주의 문화 정체성』. 전라문화총서12. 신아출판사.
- .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경상감영 400주년기념 제15회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 향토사연구. 제13-14집

(2002), 131-138.

_____. “지역 전통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제30輯 (200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전주: 신아출판사, 2001.

최준. “한국의 출판연구: 1910년으로부터 1923년까지.”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학보1』.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1964), 333-361.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림.” 『古小說研究』 제19집(2005), 255-282.